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425-225-6786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홍광철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대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승천 대축일은 그리스도교 신자의 주된 축일 중에 하나인데, 부활주일로부터 6번째 목요일, 즉 40일째 되는 날에 기념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지 40일째 되는 날에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의무축일이 아닌 곳에서는 주일로 옮겨서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셨다는 것(사도신경: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오른편에 앉으시며)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오르신 승천은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드러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ascension)과 성모님의 승천(assumption)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당신 스스로 하늘에 오르시는 능동적인 의미를 갖지만, 성모 승천은 올림을 받으시는 수동적인 승천(몽소승천)의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0,19-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인간 구원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이후, 육신과 영혼을 지닌 채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사도 1, 9)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다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두려움을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쁘게 실천해 봅시다.

미사 안내

| | |
|---------|---|
| 주일미사 |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
| 월 | 오전 10:00 |
| 수/목/금/토 | 오전 10:00 |
| 화/수/목/금 | 오후 7:30 |

성사 안내

| | |
|--------|-----------------------------------|
| 환자 봉성체 | 매달 첫 목요일 오전 |
| 병자성사 | 구역장을 통해 신청 |
| 성체강복 |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
| 예비신자교육 | (목) 오전 10:00 미사 후 (주일) 오전 8:20 |

학교

| | |
|-----------|----------------------------|
|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0:00 |
| YG(고등부) | (주일) 오전 10:00 |
| 한국학교 |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
| 안드레아 문화대학 | (주일) 오후 1:00-4:00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길이십니다.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높은 곳은 깎아 내리고, 낮은 곳은 매우고, 그리고 평평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과 삶으로 그 길을 보여 주셨고, 당신 수난과 죽음과 부활로써 그 길을 평평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나는 하느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①허위나 거짓에 반대하면서 생각과 의도를 말하는 것. ②거짓에 반대하면서 사실과 일치하여 표현되는 사고, 말, 가르침. ③올바른 실천에 대한 가르침. ④이성, 논리 또는 과학적 탐구의 규정과 법규를 따르는 선언이나 이론”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중의 어떤 것이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느님의 행동, 계시,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즉 하느님의 말씀, 약속, 하느님의 충실하심을 조건 없이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계시에 의지하며 신앙 안에서 진리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진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8,31-32).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만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이십니다. 인간생명의 필수조건은 음식, 의복, 주택 등입니다. 하지만 보다 충만한 인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나의 내적 가치가 충족될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 가치가 충족되는 것은 오직 하느님과의 통교를 통해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인이 하느님과의 통교가 없는 삶은, 즉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례상식

1.아침기도! 은총에 대한 감사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지 못하는 기도 중의 하나가 “아침기도”입니다. 어제의 피곤이 사라지지 않았고, 또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준비해야 하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아침기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들어서 아침기도를 했을 때의 그 기쁨은 하루를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아침기도는 봉헌 기도와 의탁의 기도”입니다. 아침기도를 바칠 때는 먼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바

치는 이는 복음서의 내용이 마태오 복음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봉헌의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죄가 많으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빠 여기서어 받아 주소서. 아멘.”

이어서 하느님의 전권을 고백하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침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마음을 담으면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루를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

온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진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첫째,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스승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쁜 소식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옳은 것, 참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삶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는 그리스도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하고, 한분이신 하느님께서 삼위가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어



야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에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야 하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례를 받은 신앙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니, 응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며,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알아야 지킬 수 있고,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으며,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20)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실천해 봅시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사목지표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들”

전신자 실천사항

첫째, 하루 한 번 감사드리기
 둘째,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기
 셋째, 내가 먼저 인사하기

공동체 소식

◆ 6월 본당 일정

- 6월 2일(금): 환자들을 위한 미사
- 6월 3일(토): 기도와 찬양의 밤
- 6월 4일 (주일)성령강림 대축일:성령칠은 뽑기
- 6월 6일(화): 사목회의 저녁 미사 후
- 6월 7일(수): 소공동체 위원회 저녁 미사 후
- 6월 11일(주일): 삼위일체 대축일
- 6월 13일(화): 레지오 4간부 모임
- 6월 18일(주일):성체와 성혈 대축일및 첫 영성체
- 6월 15-18일: 서북미 꾸르실료

◆ 성경 아카데미 성경강좌 안내

- 6월 말씀잔치 및 성경강좌 “룻기”안내
- 일시 : 6월 8일(목) 저녁 7:30 미사로 시작하여 오후 10시까지
- 문의 : 이수용 로사리아 (206)288-3255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환자들을 위한 미사 6/2(금)

- 6월 환자봉성체는 환자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날씨가 좋으니 성당에 봉사자들이

들이 모시고 와서 미사에 참례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환자가 계시면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9:50 환영식 및 소개,
- 10:00 미사
- 10:30 병자들을 위한 기도 및 도유
- 10:40 선물 증정 및 친교
- 11:00 점심식사
- 12:00 귀가

◆ VBS (여름 성경학교) 신청

- 대상: 현재 PrK ~ 2학년
- 일시: 7월 19일(수) ~ 7월22일(토) 까지 오전9:00 ~ 오후 2:30 까지
- 등록비: \$70
- 등록 마감: 6월18일(주일)
- 연락처: 김태미 엘리사벳 wangeyo@hotmail.com

◆ 2017년 야외미사 안내

- 일시: 7/23(주일) 10시 미사 (미사 준비 관계로 9:30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Marymoor Park

6046 W. Lake Sammamish Parkway NE
Redmond, WA 98052.

성당에서 10시, 11:30,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남쪽, 북쪽 버스 운행 합니다.
성당 출발 : 오전 9시
- 이번 야외미사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성령강림 대축일 열린 기도 모임

- 일시 : 6월 3일(토) 8:30 pm ~ 11:00 pm
가톨릭 성령운동 50주년을 맞아 열린 기도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 성령강림 전 9일 기도

-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미사 전에 9일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이합시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청하며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전례상식

2.아침기도! 감사로 하루를 여는 열쇠

아침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밤새 닫혔던 입을 열어 처음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무일도를 바칠 때 “주님! 제 입시음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를 전하오리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③ 행복을 위한 10분

10분 더 일찍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일 시간이 만들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학교로 향하고, 직장을 가진 배우자는 직장으로 향한다면 그 발걸음은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

에 남아 있는 부모는 행복에 넘쳐서 감사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이렇게 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미하오니 이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또 다른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침기도! 이렇게 가정을 바꾸어 줍니다.